

IV 신라성곽

제1절 시대개관

제2절 기본성격과 특징

제3절 주요유적

제4절 고찰



제1절 시대개관

경기도지역에 신라의 성곽이 축성되는 것은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으로 진출하고 난 이후부터이다. 신라는 진흥왕 12년(551)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남한강 상류지역의 10개 군을 빼앗고, 이어서 553년에는 백제가 점령하였던 한강 하류지역마저 탈취한 뒤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신주는 지금의 경기도일원과 충청도·강원도의 일부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이로써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두 나라의 진출을 억제하고 서쪽으로 중국과 통하는 해로를 얻어 한반도 제패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강유역 진출 이후 신라는 한강유역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하남 이성산성과 강남 대모산성, 인천 계양산성 등을 축성하는 한편 파죽지세로 영토 확장을 계속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진출하였고,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영역을 확장하였다. 7세기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는 칠중성과 낭비성, 북한산성 등 한강 이북지역에서 주로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강 이북지역에 아차산성과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고양 고봉산성, 파주 오두산성 등 많은 성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의 세력을 끌어들이어 삼국통일을 도모하게 된다. 본래 신라와 당은

648년(진덕여왕 2)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평양 이남, 즉 패강 이남의 영토는 신라의 소유로 한다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당은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직접 지배하려 하였다. 심지어 당은 신라까지도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신라는 이에 대하여 문무왕 10년(670년)부터 백제 고지를 신라 영토로 편입시키는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 운동을 후원하면서 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신라는 당으로부터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문무왕 12년(672) 당시 신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4,360척에 달하는 주장성(晝長城 :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추정)을 쌓았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성을 쌓아서 당과의 전면전에 대비하였다. 이 시기 신라군과 당군이 전투를 벌인 곳은 주로 한강에서 대동강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특히 호로고루가 있는 호로하와 행주산성부근에서 9번에 걸친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 말갈·거란과 연합한 당군 2천여 명의 목을 베기도 하였다. 나당전쟁에서 신라의 승리가 어느 정도 분명해지자, 신라는 675년 2월에 예성강 이남의 고구려 땅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나당전쟁의 승패가 신라의 우위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75년 매초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매초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 신라는 천성(泉城)에서 보급부대로 추정되는 당의 병선 40척과 1,400명의 군대를 궤멸시켰다. 보급로를 먼저 차단한 신라군은 이어서 이근행의 20만 군이 주둔하고 있던 매초성을 공격하여 격퇴하고 말 3만여 필을 얻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신라는 패강 이남 지역의 땅을 모두 확보하고 곳곳에 성을 다시 쌓았다. 이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성이 덕진산성과 호로고루, 당포성 등인데 대부분 고구려의 보루를 확장하여 쌓거나 성벽을 덧붙여 쌓은 것들이다.

그러나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역만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뿐, 그 이북 지역으로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당시 신라로서는 새로 영토로 편입된 백제 고지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신라가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전반 성덕왕대부터였다. 신라는 대외적으로 발해가 세력을 확대하여 서로 국경을 맞닿게 되자, 발해의 남하에 적극 대

응할 필요가 있었다. 성덕왕 12년(713) 개성을 쌓고, 성덕왕 17년(718)에는 한산주 도독 관내의 여러 성을 쌓기도 하였다.

발해가 남쪽으로 진출하여 신라와 동해안지역에서 국경이 맞닿은 것은 성덕왕 20년(721) 무렵이었다. 신라는 이미 그 이전부터 발해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성덕왕 20년(721) 가을 7월에 하슬라(何瑟羅) 지역의 장정(丁夫) 2천 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長城)을 쌓았으며, 효소왕 3년(733)에는 발해가 당을 침공하자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가는 도중 추위로 인하여 회군하였다. 당은 신라의 발해공격에 대한 보답으로 735년에 패강 이남의 영토에 대한 신라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었다.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개척은 이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신라의 북방개척은 경덕왕 7년(748) 10개의 군·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성덕왕 3년(782)에는 왕이 한산주를 두루 돌며 살펴보고 패강진(溟江鎭)이라는 강력한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신라는 경덕왕 21년(762)에 오곡·휴암·한성·장새·지성·덕곡 등 6곳에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그곳에 각각 태수를 파견하였다. 성을 쌓은 지역은 황해도 서흥, 봉산, 재령, 해주 등지로 고구려의 휴암성, 대현산성, 장수산성, 수양산성이 있는 곳인데 이 때에 이르러 신라에 의하여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는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개척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헌덕왕대에 취성군(황주)과 그에 속하였던 토산현(상원)·당암현(중화)·송현현(송현)을 더 설치하였다.『삼국사기』 지리지 한주 조에 나오는 28군과 49현은 바로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으며,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지역을 모두 영토로 편입하게 되었다.¹⁰⁵⁾

한편 이외에도 신라 하대에 한산주 관내에 당성진과 혈구진, 장구진을 설치하였다. 당성진은 829년(흥덕왕 40년 2월)에 당은군, 즉 오늘날 화성군 남양면에 설치한 군진으로서 현재 당성에 비정되고 있다. 당성은 1998년부터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먼저 있던 내성에 후대에 외성을 덧붙여 쌓았음을 확인하였다. 문성왕 6년(844) 강화읍에 혈구진을 설치하였으며 황해도 해안, 즉 오늘날 장산곶 근처에는 장구진을 설치하였다.

105) 전덕재, 1997, 「한산주의 설치와 변화」,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후삼국시대에 패서도와 한산주는 궁예의 지배하에 편입되었다. 특히 패서지역에서는 890년대부터 반 신라적인 농민군이나 호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들 대부분은 궁예에게 합세하였다.

신라는 한강유역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발판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한산주는 한강하류지역과 경기도, 충청도 및 황해도지역까지 포괄하는 핵심주로서 삼국시대 말부터 삼국통일을 이루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과 인천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성은 모두 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중 상당수가 삼국시대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성임을 감안해 보면, 신라가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제2절 기본성격과 특징

1) 축성시기

경기도지역의 신라성곽들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부터 통일신라 말기 까지라는 제한된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된 많은 신라 성들은 삼국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인 시기였는지, 그리고 신라가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경기도지역 신라성곽의 축성 시기는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이다. 이 시기에 신라는 새로 차지한 한강 하류지역의 방어와 지배를 위하여 군현체제를 정비하고 곳곳에 활발하게 축성을 하였다. 이 시기 읍치와 관련된 성으로는 이성산성(신주와 한산주), 아차산성(북한산주), 설봉산성(남천주) 등이 있고, 각 군현단위를 통치하기 위한 성으로는 양주의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고양 고봉산성, 행주산성, 파주 봉서산성, 교하 오두산성, 여주 파사성, 서울 호암산성, 안산 성태산성 등이 있다. 이 시기야말로 경기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신라성이 축성된 시기일 것이다.

두 번째는 대당전쟁이 본격화되는 7세기 중엽부터 발해에 대비한 축성이 이루어지는 8



〈그림1〉 연천 호로그루 전경(고구려성 바깥쪽에 신라성을 덧붙여 쌓았다.)



〈그림2〉 연천 호로그루 성벽(토축을 한뒤 석축을 하고 그 기저부에 보축을 하였다)



〈그림3〉 연천 당포성 전경(고구려성 바깥쪽에 신라성을 덧붙여쌓았다.)

세기 중엽까지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곽으로는 주장성(남한산성)이 있다. 그리고 대당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675년 이후에는 예성강 이남의 점령지역에 대한 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호로고루나 당포성, 덕진산성 등 고구려성이 확장되거나 개축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후 7세기 초에서 중엽까지는 발해와의 국경지대에 주로 축성되는데, 경덕왕 21년에는 황해도지역의 오곡·휴암·한성·장새·지성·덕곡 등 6곳에 대한 축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세 번째는 8세기 중엽 이후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로 829년에 설치되는 당성진이나 혈구진, 장구진 등 향만과 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군진이 주를 이룬다. 신라 하대에 이르면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 호족들의 거점성으로서 방형의 평지토성들이 등장하는데, 용인 처인성·평택 비파산성 등이 대표적이다.

2) 신라성곽의 특징

성곽을 쌓는 일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 토목공사이다. 따라서 모든 성곽은 그 나름대로 분명한 축성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곽이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의 최첨단 토목기술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곽은 축성시기와 축성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도지역만 하더라도 300여 개의 성곽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 10여 개에 불과하다. 성곽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각 시기별·축성주체별 축성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성곽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초축 시기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기도지역 신라성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 산성이다.

경기도지역 신라성곽의 대부분은 산성이다.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육계토성 등의 백제성은 평지토성이나 저평한 구릉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호로고루나 당포성, 은대리성과 같은 고구려성은 강안대지상에 축성되는 데 비하여 신라성은 대부분 해발고도가 100~300m 정도인 전망이 좋고 험고하지 않은 산정에 축성된다. 물론 주장성과 같이 해발 500m가 넘는 곳에 축성한 예도 있고,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평지성이 축성되기도 하지만 신라성의 주류는 역시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 신라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신라는 평지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산성을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석축성이 주류를 이룬다.

성곽의 축성방법은 목책, 토성, 석성 그리고 토석혼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도지역의 신라성곽은 기본적으로 잘 다듬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계의 성돌로 쌓은 석축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석축성의 성돌은 상당히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

석의 크기는 너비 30~45cm, 두께 20cm, 길이는 45cm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은 목책이나 판축, 또는 토축을 주로 하는 한성백제시기의 백제성과 차이를 보인다. 한성백제시기에도 석축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포천 고모루성이나 효양산성, 길성리 토성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토축이거나 다듬지 않은 할석으로 거칠게 쌓은 석축을 일부 구간에 쌓은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일정한 규모의 성들이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신라성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둘레 1km 내외의 비교적 큰 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이루며 방사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성들이 군사적 기능과 함께 주·군·현의 치소성으로서 행정적인 기능까지 겸비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행정치소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넓은 평야지역을 끼고 있듯이, 신라성 또한 주로 교통상의 요충지에 구축되며 배후에 넓은 평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임진강 일대나 서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백제성이나, 교통로를 따라 직선상의 분포를 보이는 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과도 차이를 보인다.

□ 현문(懸門)과 보축(補築) 등 축성방법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성의 축성기술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성곽인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의 성문과 같은 개거식(開居式)이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야 올라갈 수 있는 현문식(懸門式) 성문이 주를 이룬다. 다락문이라고도 하는 현문식 성문은 이성산성과 대모산성, 아차산성, 설봉산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중부지역의 계족산성¹⁰⁶⁾, 온달산성, 왕검성 등 신라계통의 성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성벽외곽 기저부의 보축시설이다. 보축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저부에 덧붙여서 성벽을 쌓은 것으로, 고구려성벽에서도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신라성에서 주로 확인된다.

106) 계족산성을 백제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沈正輔, 「百濟 石築山城의 築城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韓國土古史學報』 제35호, 한국상고사학회)



〈그림4〉 안산성태산성 성벽(체성벽 바깥쪽에 보축을 하였다.)



〈그림5〉 영월 왕검성 동문(전형적인 현문식이다.)



〈그림6〉 단양 온달산성 북문(현문식 성문과 보축시설이 보인다.)

□ 인접지역에 고분군이 수반되어 있다.

신라성의 특징 중 하나는 인접지역에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성 주변에 고분군이 조성된다는 것은 전쟁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성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산성 주변에 고분군이 많다는 것은 신라의 성곽들이 행정적인 기능을 겸비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경기도지역의 경우 이성산성과 주변의 금암산고분군·방이동고분군, 아차산성과 아차산고분군, 오두산성과 성동리·법흥리고분군, 파사성과 매룡리고분군 등이 있다. 물론 모든 고분군이 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산성에 고분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은 남한지역에서 아직 이렇다 할 고구려 고분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나 백제산성과 고분군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경기도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라성에서는 기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 있어 기와는 고급건축부재로서 주로 왕궁이나 사찰, 관청이나 학교 등의 공공건물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기와가 발견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했던 건물 중의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성백제 시기에는 기와의 제작기법이 아직 완숙단계에 이르지 못해 왕궁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도 그리 많은 기와가 출토되지 않고 있으며, 여타의 성곽에서 출토되는 백제기와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고구려의 경우 신라나 백제에 비하여 이른 시기부터 기와사용이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남한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기와는 붉은 색을 띠고 출토지역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의 기와가 출토되는 산성은 대부분 신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한강유역의 신라성은 6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특징적인 신라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어 다른 시기에 축조된 성들과의 구별을 어렵지 않게 해준다.

3) 신라성곽 조사현황

경기도지역의 신라 성곽으로는 양주 대모산성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신라가 대당전쟁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된 매초성(또는 매소성)터를 찾기 위하여 1981년부터 4차에 걸쳐 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¹⁰⁷⁾ 1995년과 1998년에는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동문지와 서문지가 발굴되어 현문식의 성문구조가 확인되었다.¹⁰⁸⁾ 발굴조사 결과 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신라토기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문지 바깥쪽의 저장구덩이에서는 백제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하남 이성산성은 1985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¹⁰⁹⁾ 이 성은 조선시대부터 백제 하남 위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발굴목적도 백제도읍지를 찾기 위함이었다. 8차조사에서는 고구려 성으로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이성산성 역시 백제유물과 고구려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건물지와 신라토기로 미루어 신라 한산주의 읍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10차 발굴조사에서는 2차에 걸쳐 쌓은 치와 문지 및 1차성벽과 2차성벽의 구조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어 이성산성의 초축과 관련된 이론이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오두산성은 백제 관미성(關彌城)으로 추정되어 온 유적으로서 1992년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¹¹⁰⁾ 조사단은 이성이 백제 관미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발굴결과 노출된 성벽이 고구려식 성벽이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출토유물은 대부분 신라-통일기의 것이고 백제나

107) 文化財研究所·翰林大學校博物館, 1990, 『楊州大母山城 發掘報告書』.

108) 최영희 외, 2002,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한림대학교박물관.

109) 김병모·심광주, 1987, 『二聖山城-發掘調査中間報告書』.

김병모·심광주, 1988, 『二聖山城-2次發掘調査中間報告書』.

김병모·심광주, 1991, 『二聖山城-3次發掘調査報告書』.

김병모·김아관, 1992, 『二聖山城-4次發掘調査報告書』.

김병모·김아관, 1998, 『二聖山城-5次發掘調査報告書』.

김병모·윤선영, 1999, 『二聖山城-6次發掘調査報告書』.

110) 황용훈·신복순·김희찬, 1992, 『오두산성 I』,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고구려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포천 반월산성은 최근까지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¹¹¹⁾ 발굴조사에서는 이 지역의 고구려 지명인 「馬忽」명 기와가 출토되어 고구려 마홀군의 치소(治所)로 고구려 낭비성(娘臂城)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¹¹²⁾ 성벽과 치의 축성방법이 고구려식이라 하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고구려 낭비성이나 마홀군의 치소로 군사·행정의 중심지였다면 그에 걸맞는 고구려유물이 출토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고구려유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한강 이남지역의 망이산성은 안성군·이천군·음성군의 경계에 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 성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2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백제·통일신라시기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나 고구려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봉수지 주변의 토성은 백제, 남문·서문지는 통일신라, 2호 치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³⁾

화성의 당성은 삼국시대 대당교역의 중심지였던 당항성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신라가 장악하기 전 백제나 고구려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최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실시된 2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의 테포식 석축산성은 7세기 경에 축성된 신라 성이고, 포곡식 토석혼축성은 829년 당성진 설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¹¹⁴⁾

아차산성은 한강을 건너 풍납토성과 마주하는 곳에 있는 석성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개로왕이 참수당한 백제 아단성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 성은 1998년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의해 1차조사가 이루어져 석축성벽과 보축부분이 확인되었으나, 조사보고서에서는 석축성벽의 외부에 흙을 덧붙인 토성의 형태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도출하였다.¹¹⁵⁾ 이에 따라 이 성의 정확한 성격규명을 위하여 1999년 서울대학교 박물관

111) 박경식 외, 2001, 『포천 반월산성 5차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112) 서영일, 2001,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제11집, 고구려연구회.

11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114) 배기동·박성희, 2001, 『唐城-2次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학교 박물관.

115) 광진구·명지대학교부설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8, 『아차산성 '96보수구간내 실측 및 수습발굴 조사보고서』.

에 의한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현존하는 석성은 7세기 초에 축성된 신라성벽이며, 성내에서 출토된 「北漢」이라는 명문화를 근거로 신라의 북한성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¹¹⁶⁾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설성산성은 1999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원에 의하여 지표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2001년과 2002년에 1·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3차에 걸쳐 개축된 현문식의 서문지와 건물지, 저장구덩이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단은 분지의 등성시설과 성내부의 건물지·저장구덩이 등에서 발견되는 백제토기를 근거로 백제가 석성으로 초축하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¹¹⁷⁾

이천 설봉산성은 1998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래,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원에 의하여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내에서는 '咸通' 銘이 쓰인 벼루를 비롯하여 많은 신라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성내의 저장구덩이에서는 많은 양의 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설봉산성, 반월산성 등과 함께 한성백제기의 백제석축성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¹¹⁸⁾

여주 파사성은 복원공사 도중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성은 해발 230m인 파사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둘레 935m의 테뫼식 산성으로, 조선 선조때 수축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신라유물들과 함께 백제토기도 출토되었지만,¹¹⁹⁾ 출토유물과 성벽의 구조를 고려하면 역시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암산성은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석수동의 경계를 이루는 호암산(해발347m)에 축성된 둘레 1,250m의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199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성내에서는 우물지 2개소와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乃大內>銘기와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신라유물이 출토되어 7세기 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6) 임효재 외, 2000,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117) 박경식 외,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18) 박경식 외, 2002, 『이천 설성산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119) 김아관, 2003,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약보(1)』,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한성백제시기의 한산으로 비정되는 유적 중의 하나인 남한산성은 1999년부터 토지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산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행궁지 주변에서 백제의 주거유적이 확인되고 백제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유물의 양이 많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 백제의 도읍지로 비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행궁과 성벽 주변에서 발견되는 신라토기와 와적층을 이루며 출토되는 기와자료 등은 남한산성이 문무왕 12년(672)에 축성된 신라의 주장성(晝長城)임을 확증시켜 주고 있다.¹²⁰⁾

120) 심광주 외, 2002, 『南漢山城-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제3절 주요유적

1) 하남 이성산성(二聖山城)

몽촌토성이 있는 올림픽공원의 북쪽에 접하여 있는 강동대로를 따라가면 하남시와 연결되는 도로와 만나게 되는데, 이 도로를 따라 4km 정도 가면 우측에 춘궁저수지가 보이고 좌측에 이성산성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300m 정도 오르면 이성산성의 남벽을 관통하여 성내로 진입하게 된다.

이성산성(사적 422호)은 하남시 춘궁동, 초일동, 광암동의 분기점이 되는 이성산(209.8m) 정상과 남동쪽 골짜기를 감싸안은 포곡식(包谷式)의 석축산성이다. 남쪽으로는 춘궁동,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향동 등 비교적 넓은 평야지역이 남한산성에서 뺀어 내려 온 금암산과 객산 등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검단산이 가로막고 있다. 한편 북쪽으로 한강유역의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시야가 트여 있어 아차산 일대와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가 넓게 조망된다.

이성산성은 백제 초기도읍지로 추정되어 1986년부터 한양대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10차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3차 발굴조사에서 이성산성은

신라성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동안의 발굴과정에서 백제성이나¹²¹⁾ 고구려성으로서의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8차 발굴조사에서는 고구려 자와 목간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이 신라 유물이고 건물지유구나 축성의 방법을 고려할 때 이성산성은 6세기 중엽 축성되어 9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신라성이라는 것이 대세이다.

이성산성의 총 둘레는 1,665m로서 삼국시대의 성곽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한다. 성벽은 해발 209.8m인 주봉을 중심으로 남쪽의 능선을 따라 축조하여, 부정형의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성 내부는 경사가 완만하고 곳곳에 평탄지가 조성되어 규모에 비하여 가용면적이 매우 넓으며, 성 내부면적은 약 128,890㎡이다. 성벽의 안쪽에는 5m 정도의 회곽도를 두어 병사들의 이동이 쉽도록 하였으며, 성벽은 자연지형을 따라 굴곡을 이루도록 쌓았다. 성이 급격히 회절하는 부분에는 별도의 치를 설치하였는데 치의 길이는 3.4m, 너비는 12.5m에 달하여 길이보다 너비가 넓게 축조하였다. 성에는 북쪽, 서남쪽, 동쪽, 남쪽에 문지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 중 남문이 정문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 동문지가 확인되었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 현문식(懸門式)의 구조이며 문지의 바닥에는 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성벽은 2차에 걸쳐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성벽을 쌓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성벽이 무너지게 되자 1차성벽의 바깥쪽으로 대략 3.8m 지점에서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았다. 두 성벽은 쌓은 시점의 차이 때문에 축성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1차성벽은 비교적 옆으로 길쭉하고 덜 정교하게 다듬은 성돌로 퇴물림 쌓기를 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았다. 반면 2차성벽은 기단부를 조성한 후 바닥에 큰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표면과 모서리를 정교하게 다듬은 폭 30cm 내외인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로 정교하게 쌓아올렸는데, 퇴물림쌓기를 하여 1차성벽에 비하여 성벽의 경사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성내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집수시설로는 두 군데의 저수지가 확인되었으며, 남문지쪽의 저수지는 2차에 걸쳐서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A지구의 2차저수지는 직사각형의

121) 최몽룡, 2003,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서경, 13쪽.



〈그림 7〉 하남 이성산성 동문지(현문식이며 바닥에 수구가 조성되어 있다.)

모양으로 쌓았는데, 물이 빠지지 않도록 뒷부분은 점토로 다지고 다듬은 돌로 정교하게 쌓았으며 크기는 16.4m×26.6m 정도이다.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건물지는 9개소이며, 초석이 일부 노출되었거나 건물지가 확실한 것을 포함하면 최소한 15개소 이상의 대형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면적은 장방형 건물의 경우 대략 80~90평 정도이며 다각형 건물은 20~30평 정도이다. 건물지 중에는 8각, 9각, 12각 등 다각형 건물지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며, 그 중 동서로 대칭을 이루는 9각건물과 8각건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天壇)과 사직단(社稷壇)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체로 6~8세기 경의 신라토기류와 기와가 주종을 이루고



〈그림 8〉 하남 이성산성 남벽의 계단식 수구

있으며 벼루도 여러 점이 있다. 저수지 내에서는 철제도끼와 쇠스랑, 무진년명(戊辰年銘) 목간(木簡), 짚신, 목제인형, 바구니, 팽이, 동물뼈를 갈아 만든 빗치개 등 매우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성산성에서는 다른 산성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형건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2차에 걸친 대대적인 축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하고 설치한 신주(新州)의 읍치성으로 축성되었다가, 이후 7세기 중엽 한산주의 읍치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간에 쓰여진 명문을 고려할 때 이성산성은 남한성 또는 한성으로 불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양주 대모산성(大母山城)

의정부 시가지를 지나 3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의정부시청이 있는 곳에서 350번 국도를 따라 좌회전하여 3km 정도 가면 가업리 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곳에서 가업리방향으로 100m 정도 가다가 남쪽으로 산길을 따라 200m 정도 올라가면 대모산성의 북문에 이르게 된다.

양주 대모산성은 일명 양주산성(楊州山城)이라고도 하며, 해발 212m인 대모산의 정상부를 에워싸고 있다. 이곳은 북서방향의 유일한 통행로인 광적면 일대를 굽어볼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3번 국도를 따라 의정부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대모산성의 건너편에는 불곡산(460m)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 산에는 곳곳에 보루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고구려보루임이 확인되었다.

대모산성이 신라의 대당(對唐) 항쟁지인 매소성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1995년과 1998년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산성의 둘레는 약 1.4km이며 성벽은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나 북문지 좌우측과 동편 등 3개소에 70~80m 정도의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의 높이는 4~5m이고 아랫부분의 폭은 주변의 지세에 따라 가파른 남쪽은 6m, 완만한 북서쪽은 8m쯤 된다. 성벽은 잘 다듬은 할석으로 경사지게 들어쌓기 하였으며, 성벽 하단부 바깥쪽에는 보축성벽을 쌓아 안정성



〈그림 9〉 양주 대모산성 북벽(체성벽에 보축성벽을 높게 덧붙여 쌓았다.)



〈그림 10〉 양주 대모산성 성벽

을 높였다. 성벽 한 단의 높이는 12~15cm 정도이며, 성벽의 폭은 아랫부분이 3m, 윗부분이 1.2m 정도이다.

성문은 3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다락문이라고 하는 현문식(懸門式)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이성산성, 아차산성, 충주산성이나 왕검성 등 신라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양식이다. 성내부에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지가 여러 곳이 있으며, 지표에는 원형의 초석 여러 개가 노출되어 있다. 5곳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며, 1980년대 초의 발굴 조사 때 군창지(軍倉址)가 발견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건물지 내부와 추정 저장공, 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무기류·농기류·마구류·건물부재·일반생활용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의 유물

로는 백제, 신라계의 유물이 주류를 차지한다. 출토유물 중에는 덕부사(德部舍), 국(國), 부(富), 대부운사(大浮雲寺) 등의 명문 기와가 발굴되어 주목된다.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로는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물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현재의 석축성벽은 삼국시대 신라에 의하여 쌓여 고려·조선시대에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문지 북편의 넓은 대지에서 발견된 저장구덩이에서는 많은 백제계 토기가 출토되어 현재의 석축성이 축조되기 이전, 이미 이 곳에 토루나 목책 등의 방어시설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3) 남양주 퇴피산성

퇴계원에서 43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 가면 우측으로 퇴메마을로 진입하는 소로가 나온다. 이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광전목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산 정상상을 향하여 500m 정도 올라가면 석축으로 된 퇴피산성에 이르게 된다.

퇴피산(368.7m)은 북쪽으로 용암산(476.9m)과 수리봉(536.8m)을 연결하는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내려 퇴계원에까지 이르며, 동서방향의 교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치터널이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별내에서 의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광릉쪽으로 우회하거나 퇴계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용암산의 북쪽에는 천보산맥이 길게 가로막고 있어 3번 국도쪽으로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퇴피산성은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연결되는 43번 국도와 퇴계원에서 광릉방면으로 연결되는 37번 국도 양쪽을 모두 瞰制할 수 있는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43번 국도의 서쪽에는 국사봉 보루가 위치해 있어 협공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퇴피산을 옛성산 또는 이성산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의 을지문덕장군이 쌓았다는 말이 전한다.

퇴피산성은 해발 370.2m인 퇴피산의 정상부와 남쪽의 363.6m 높이의 봉을 연결하고 서쪽으로 산복을 감싸안으며 구축한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형태는 남서쪽을 장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둘레는 625m이다. 성벽은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면석이 노출되어 있는 곳은 북서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성벽 중 치가 1개소 있다. 북서쪽의 능선 모서리 부분의 압반 위에 성의 기단석축부가 폭 3.5m 정도 남아 있는데, 이곳은 4



〈그림 11〉 남양주 테외산성 성벽

각형의 치가 있던 곳으로 그 규모는 돌출부의 폭이 8m, 길이가 4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문지는 동문지와 서문지 2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문지는 정상부에서 60m 정도 내려온 지점이며 이곳에 개구부가 있다. 서문지는 능선에서 동벽에서 서북쪽으로 50m 지점에 있으며 역시 개구부가 있다.

성내에는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가며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평탄지가 몇 군데 있고, 남쪽사면의 완경사지에도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양의 토기편과 와편이 발견된다.

산성내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토기편은 대체로 장경호와 단경호, 각병과 주름무늬병 등이 있는데, 특히 주름무늬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와

는 선조문이 약 90%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승문과 격자문도 발견된다. 이러한 유물 출토상황은 한강유역의 아차산성이나 호암산성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보다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다고 볼 때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남양주 불암산성(佛岩山城)

중계동에서 불암초등학교 앞을 지나 소로를 따라가면 학도암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서 등산로를 따라 능선방향으로 올라간 후 북쪽으로 정상을 향하여 오르다 보면 돌무더기가 흩어져 있는 불암산성의 남벽으로 오르게 된다.

한북정맥이 양주지방에 이르러 주엽산을 이루고, 그 남쪽으로 뻗은 여맥 하나가 수락산으로 이어지는데, 그 주능선을 따라 덕릉고개를 넘으면 불암산이 된다. 서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마들평야가 발달되었고 북한산과 마주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된 봉우리가 마치 송낙을 쓴 부처의 형상이라 하여 불암산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주봉(507m) 남쪽에는 높이 420m의 제2봉이 있다.

불암산성은 테피식의 석축산성으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부등변의 5각형이나 4각형에 가깝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221m이다. 성벽의 석축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나 남쪽과 동쪽의 일부 성벽은 면석이 남아 있다. 남쪽의 성벽은 7단의 석축에 높이 120cm 정도가 남아 있으며, 동쪽은 폭 15m 정도에 높이 1.5m 정도가 남아 있다. 성벽은 현재 7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퇴물림쌓기는 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다.

성돌은 대부분 화강암이며 할석을 장방향으로 다듬어 쌓았는데, 크기는 대략 너비 45cm, 두께 20cm이며, 한층한층 정연하게 줄을 맞추어 쌓았다. 무너진 성돌 중 뒷채움돌은 너비나 두께에 비해 길이를 길게 하여 상호 물리도록 함으로써 성벽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돌 사이사이에는 약간의 찌기돌이 사용되고 있다.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성벽이 남쪽능선과 만나는 지점인 현재 등산로가 형성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정상부에서 북동쪽의 아랫단, 성벽 안쪽에는 직경 230cm 정도의 석축구조물이 있는데, 50~70cm 크기의 할석이 원형을 이루며 쌓여 있다. 형태상으로는 우물과 같지만 정확



〈그림 12〉 남양주 불암산성 성벽

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성 내부에는 직경 8m의 원형 구덩이가 있다. 구덩이의 현재 깊이는 40~80cm 정도이며 이 함몰부에 유독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아 구덩이를 파고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부의 남쪽은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정상부의 평탄한 곳과 경사면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무문토기류와 경질토기편이 함께 발견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¹²²⁾ 무문토기는 저부편으로 전체적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점토에 굵은 석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으며, 단면 원형의 점토대토기 구

122) 심광주, 『九里市誌』上, 1996, 387~389쪽.

연부편도 발견된다. 그 외의 토기들은 대체로 회청색의 경질토기들인데 신라~통일신라기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도기편도 발견되고 있다.

축성기법이나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 산성은 삼국시대에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성의 축성 이전에도 이 곳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주거유적이나 간단한 방어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파주 칠중성(七重城)

적성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서북쪽으로 2km 정도 가면 고개를 넘어 서편으로 적성향교 팻말이 보인다. 이 곳에서 향교쪽으로 들어가 향교 정문 앞을 지나 산길을 따라 200m 정도 오르면 칠중성의 동벽을 지나 성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칠중성이 있는 중성산(149m)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내린 줄기로서, 북쪽으로 임진강변에 이르기까지 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주월리와 가월리를 포함한 임진강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은 문산, 파주에서 전곡, 연천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와 개성, 장단에서 의정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349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특히 칠중성의 동북쪽 전방에 있는 가여울 또는 술탄이라 불리는 지점은 삼국시대부터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던 교통로이며, 한국전쟁당시에도 중공군이 도하한 지점으로 유명하다.

삼국시대에 이 지역은 처음에는 백제에 속하여 난은별(難隱別)이라 했다가 고구려가 장악하고 난 이후 칠중성이라 하였으며, 신라가 차지한 이후에도 칠중성현이라 부르다가 경덕왕 16년(757) 중성으로 고치고 내소군의 소속현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전투 기록은 백제 온조왕 18년(B.C. 1년)조로 말갈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칠중하(七重河)에서 맞서 싸워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파묻어 죽였다고 한다. 다음은 신라 진평왕 25년(603년) 8월, 고구려가 장군 고승으로 하여금 말갈과 군사를 합쳐 이 칠중성을 공격



〈그림 13〉 칠중성 남벽(보축성벽이 보인다.)

하게 하자 왕이 친히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이를 막기 위해 한수를 건너왔고, 성 안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질러 이에 호응하자, 고승이 그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 갔다. 이어 선덕여왕 7년(638년) 10월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침범하여 백성들이 크게 놀라 산곡간으로 대피하느라 소란하자 왕이 대장군 알천에게 명하여 민심을 안정시켰으며, 11월에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성 밖에서 싸워 이를 격파하여 승리하였다.

태종무열왕 7년(660년) 11월 1일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군주를 비롯한 필부(匹夫)가 적을 막다가 전사하였다. 삼국통일 후 신라와 당(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자 문무왕 14년(674년) 당장(唐將) 유인궤가 거란, 말갈과 더불어 칠중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다음해 2월 당나라는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군을 받아들이고 백제 옛 땅에 웅거한다 하여 유인궤가

군사를 이끌고 이 성을 공격한 뒤 돌아갔으며, 9월에 당병이 거란·말갈병과 함께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이 때 소수 유동이 전사하였다.

칠중성은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석축성임이 밝혀지게 되었다.¹²³⁾

칠중성은 해발 147.7m의 중성산에서 북쪽으로 8부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내려오다가 동쪽부분에는 작은 계곡을 감싸안고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북동~남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포곡형의 석축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의 전체 둘레는 대략 603m이다. 현재 체성벽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살펴보면 치석된 할석을 사용하여 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경사가 급한 곳은 성벽의 기저부 바깥쪽으로 보축시설을 하여 성벽을 보강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안쪽에는 많은 군용 참호가 파여 있으며, 참호의 벽면에서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와편 중 수키와는 아미성이나 이성산성에서 출토되는 것과 같은 유형의 당초무늬기와가 특징적이며, 압키와편에는 사격자문, 집선문, 승석문 등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는데, 고구려와편의 특징을 보이는 것도 있다. 토기편은 대략 완이나 합을 비롯해 신라계의 유물이 주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대략 신라 진평왕 25년(603년) 칠중성의 전투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확보한 이후 오래지 않은 시점에 칠중성 지역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칠중성에서는 백제계의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일대가 백제의 영역이었을 때에는 이 곳에 방어시설이 없었거나, 있었다라도 소규모의 성이 구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가 장악한 이후 정상부를 중심으로 보루형태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라가 이 곳을 장악한 이후 현재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규모의 석축성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성은 삼국 중 신라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로서는 칠중성이 임진강 수계를 방어하는 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칠중성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3만여 명이 인해전술로 밀려 내려올 때 영국군 1

123) 박경식외,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개 대대가 3일 동안 버텨낸 전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6) 연천 수철성(水鐵城)

의정부에서 3번 국도를 따라 동두천방면으로 가다가 덕정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56번 국도를 따라 5km 정도 가면 368번 지방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지방도를 따라 봉암저수지와 간파리를 지나면 도로 우측으로 우뚝 솟은 산이 있다. 이 산의 정상부에 수철성이 자리잡고 있다. 서쪽방면은 급경사로 인하여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와촌과 양원리 마을 쪽으로 우회하여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철성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해발 397m 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589m인 마차산의 산록이 남북으로 길게 발달하면서 서쪽으로 감악산 산록사이에 협곡을 형성하고 북단에 돌출된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마차산과 감악산 사이의 협곡을 따라 형성된 도로는 양주지역에서 적성이나 연천방면으로 가는 주요한 교통로가 되었다. 수철성은 이 교통로를 감제(瞰制)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철성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전설은 일반적인 축성설화와 유사하다. 마을주민들은 수철성을 할아버지성, 마주보고 있는 아미성은 할미성이라 부른다. 옛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성 쌓기 내기를 하여 동시에 각자 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할미가 먼저 성쌓기를 끝마쳤다. 이에 할미가 돌을 치마에 가득 담고 할아버지를 지원하러 출발하였다. 그런데 할미가 돌을 갖고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성을 다 쌓았으니 돌이 필요 없다' 하자 할미는 돌을 중간에 버렸는데 그것이 큰 돌무더기가 되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수철성이 있는 해발 397m 봉은 정상부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성은 이 평탄한 정상부의 외곽을 돌아가면서 쌓은 전형적인 테포식 석축산성이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북동~남서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250m 정도이며 동남쪽에는 70m 가량의 성벽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현존하는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은 4m 정도이다. 반면 북서쪽부분은 성벽이 대부분 무너진 상태여서 면석이 남아 있는 부분은 없다. 수철성의 동북쪽 회절하는 부분은 마치 치성을 쌓듯이 돌출시켜 둥글게 쌓았는데, 1.8m 정도의 큰 자연석을 기단석으로 하여 그 위에 납작한 할석으로 정교하게 쌓았다.



〈그림 14〉 연천 수철성 성벽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22단 정도이다.

성 내부는 평탄하고 곳곳에 참호가 구축되어 있으며, 남쪽 정상부에는 단이 지면서 돌출되어 있어 당초 장대 등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다. 성내에서 기와편은 전혀 수습되지 않으며, 토기편 중에는 회색과 회청색의 경질토기류가 많고 원권문이 찍혀 있는 인화문토기 뚜껑과 고배대각, 완 등 신라토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철성은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둘레는 300m가 안 되는 소규모의 성으로 칠중성의 보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포천 반월산성(半月山城)

포천읍내에서 포천천을 건너 58번 지방도를 따라 2km 정도 가면 구읍리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서 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면 반월산성의 남벽을 통하여 성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성의 형태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해서 반월산성이라고 부른다. 반월산성(사적403호)이 남아 있는 곳은 동쪽과 서쪽이 험준한 산맥으로 차단되고, 그 사이에 고교천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며 형성된 좁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철원을 거쳐 함흥으로 가는 관북로가 여기를 통과하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반월산성은 1994년 강남대학교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후 단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5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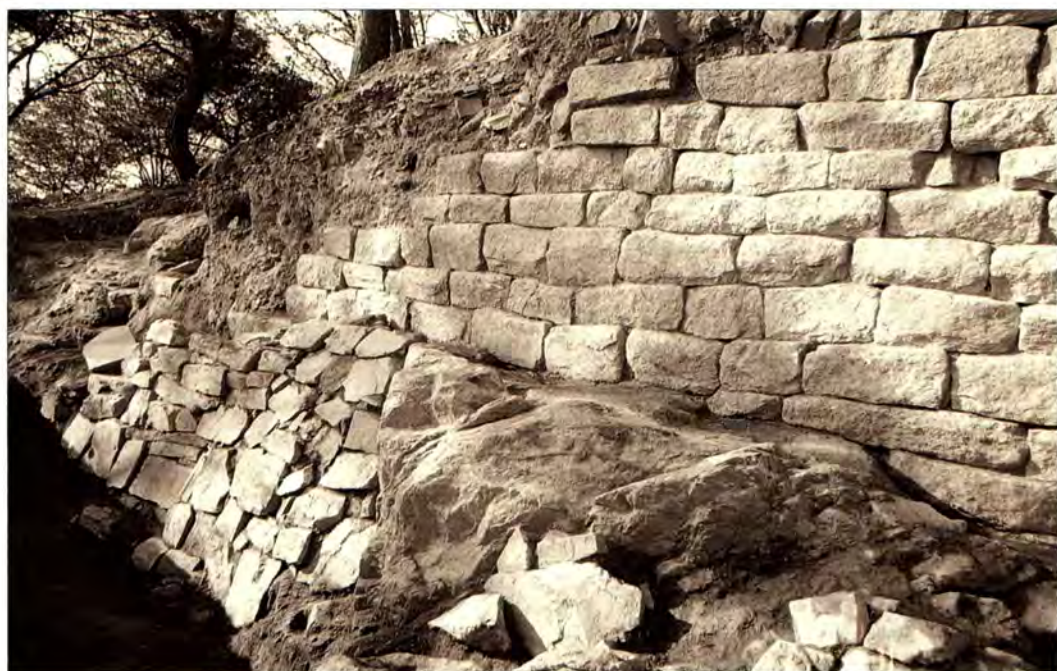
반월산성은 둘레가 1,080m이고 성벽의 높이는 4~5m 정도로서 삼국시대의 성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한다. 성돌은 대부분 주변에서 채석한 것으로 보이는 화강암으로, 폭 40cm 내외에 두께 20cm 정도이며 잘 다듬어져 있다. 성벽은 정상부에 가까운 산의 경사면을 ‘ㄷ’자 형태로 파내고 한쪽면만을 쌓아올리는 편축식(片築式)으로 쌓았으며, 기저부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2~6cm 정도씩 안쪽으로 들여 쌓아 성벽의 안정성을 꾀하였다. 성벽 안쪽에는 7~8m 정도 폭의 회곽도(廻郭道)를 만들어 병력의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문터는 2군데가 확인되었다. 남문터는 남벽에서 서쪽으로 굽어지는 지점에 설치되었는데, 이 곳이 반월산성의 주출입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터의 폭은 2.64m이고 길이는 11m 정도이다. 북문터는 북벽의 평탄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는 평거식이며, 규모는 폭이 1.48m이고 길이가 7.5m이다.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돌출시켜 쌓은 치성(雉城)은 남치성, 서치성, 북서치성, 동치성 등 모두 4개소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헬기장 주변과 망대지 뒷편, 현재 성내로 진입하는 출입구 부분 등 6개지역에 걸쳐서 확인되었다. 장대지는 2개소가 있으며, 우물지도 2개소가 확인되었다. 우물은 원형으로 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직경은 1.7m 정도이고 6~7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다.



〈그림 15〉 포천 반월산성 남벽(보축성벽이 보인다.)



〈그림 16〉 포천 반월산성 성벽

반월산성에서는 기와 및 토기편 외에도 석기류와 철기류 등 귀중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특히 1995년 발굴조사시에 출토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명 기와는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마홀(馬忽)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설치했던 군명인데, 암키와에 양각으로 돌출시켜 글자를 찍었다. 토기류로는 무문토기편부터 백제토기로 추정되는 원저호들과 통일신라대의 완과 대부완, 단경호류 등 긴 시간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 외의 유물로는 철제 초두(鏃斗)와 철낫, 철제 도끼, 철촉(鐵鏃)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반월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통일신라시기까지 사용되다가 고려시대에는 폐성이 되었으며, 조선시대 광해군 10년 후금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축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반월산성의 중심 연대는 대략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은 백제에 의하여 석성으로 축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단언을 내리기에는 증빙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8) 포천 성동리산성(城洞里山城)

포천에서 47번 국도를 타고 철원방향으로 가다가 38선 휴게소를 지나면 전곡방면에서 오는 37번 국도와 만나는 신장삼거리가 있는데, 이 곳에서 동북쪽으로 1km 정도 가면 도로 서편 해발 180m의 구릉에 산성이 있다. 이 곳은 포천에서 철원방면의 남북교통로와 전곡에서 이동방면의 동서교통로가 교차하는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영평천이 남서방향으로 흘러 포천천과 만나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수운을 감제(瞰制)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주변지형은 동쪽으로 관음산(733m), 관모봉(585m), 북쪽으로 불무산(663m), 서쪽으로 보장산(555m), 종자산(642m)이 솟아 있고, 남쪽으로는 영평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이성은 궁예가 축성했다는 전설이 전하는데, 918년 왕건의 군대에 쫓기던 궁예가 한 때 이 곳에 웅거하였으며, 백성과 군사를 동원하여 한탄강에서 돌을 날라다 성을 급조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성은 산 능선상에 조선 순조의 세자 익종(翼宗)의 태를 안치하면서 태봉산성(胎峯山城)으로도 불리웠다고 한다.



〈그림 17〉 포천 성동리산성 성벽

성동리산성은 테피식의 석축산성으로 산성의 평면 형태는 동서로 긴 사다리꼴 모양이며, 성벽의 둘레는 401.9m이다. 성벽은 8~9부 능선상인 해발 157m 정도의 높이에 축조하였으며 평지와와의 비고는 100m 정도이다. 성내부의 면적은 10,775㎡(3,259평)이고 동서길이 142m, 남북길이 84m이다.¹²⁴⁾

성벽은 38×26cm, 50×29cm 정도인 화강암 성돌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쌓아올렸고, 틈새에는 켜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성벽 외측면의 돌은 가공석과 할석의 자름면을 이용하여 성돌의 틈이 보이지 않도록 틈과 모를 맞추어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 현재 20~21단의 석축이 남아 있으며, 성벽의 높이는 5.5m 정도이다.

문지는 남쪽 계곡부를 막아 축조한 남벽의 서측편에서 1개소가 확인된다. 평면은 어긋문양식을 하고 있으며 규모는 상단너비 5m, 하단너비 2~3m이며, 바닥부에서 상면까지의 높이는 5~7m 정도이다. 양측벽의 면석들은 모두 결실되고 뒷채움석들만 남아 있다.

현재 치성이 확인되는 구간은 북동회절부로서 규모는 체성에서 4m 정도 돌출하여 있고, 너비 3.2m, 높이 2.2m 내외이다. 현무암을 사용하여 쌓았으며 치성의 성돌은 폭 60cm, 두께 30cm 정도이다. 성내에서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우물지를 중심으로 상단대지에 2개소, 중단대지에 1개소 등 모두 3개소 정도이다. 하단대지는 현재 군사시설물로 인해 파괴가 심한편이다. 그외에 성내에 우물지가 1개소 있으며, 남벽의 중간부에 수구가 있다. .

산성의 내부에서는 각종 토기편과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기와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는 이 산성의 축조 연대와 활용시기를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토기편은 소량이지만 인화문토기편과 완, 호와 같이 통일신라 토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성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 이후에는 폐성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여주 파사성(婆娑城)

여주에서 이포대교를 건너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7번 국도를 따라

124)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백종오·현남주, 『抱川 城洞里山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京畿道博物館, 1999.



〈그림 18〉 여주 파사성 성벽(보축성벽이 보인다)

300m 정도 지나면 석재가공공장이 나온다. 그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산길을 올라가면 파사성의 동문을 통하여 성내로 진입할 수 있다.

파사성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의 경계에 있는 파사산(230.5m) 정상에서 동남쪽 꼭부를 둘러싸고 있는 포곡형의 석축산성이다. 파사성의 서쪽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현재 이포대교가 놓여 있다. 이포는 남한강 수로의 중요한 포구였으며 여울을 이루고 있어 쉽게 도하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주변지역은 모두 해발 30~40m의 낮은 평지여서 넓은 지역이 조망되며, 서쪽으로 한강에 연하여 37번 국도가 지나고 있어 교통로를 장악하기 매우 유리한 지점이다. 파사성에서 남쪽 4km 정도 되는 지점에는 여주 보통리 고분군이 있다.

성의 전체 둘레는 943m이고 내부 면적은 1만 2천 평 정도이다. 성벽은 비교적 정연하게 쌓았는데 삼국시대에 축성된 부분과 조선시대에 개축된 부분이 구분될 정도로 축성기법에 차이가 있다. 삼국시대 축성부분은 바른층쌓기로 아랫돌과 윗돌이 정연하게 맞물리도록 쌓았지만, 조선시대에 개축한 부분은 축성상태가 조잡하고 각층이 흐트러져 있으며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이다. 북쪽은 특히 성벽의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높이 5~6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축성방법은 대체로 편축하였으나 북쪽성벽은 협축하였는데, 상부의 폭은 520cm이다.

성내의 시설로는 동문과 남문 등 2개의 성문과 배수구, 우물지, 건물지 등이 있다. 남서쪽 해발 170m 지점에 만들어진 남문은 폭이 4.7m 정도이며 좌우에는 높이 120cm, 상부폭 40cm 크기의 화강암제 팔각형 고주초석이 남아 있다. 동문은 파사산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동문의 폭은 4.6m 정도이며, 외곽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ㄱ자 형의 용성(甕城)이 구축되어 있다. 성내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수구는 남문에서 동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성벽이 무너져 현재 덮개돌 2개만이 남아 있다. 장기간 많은 병력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다른 성에 비해 성내에 물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유일한 우물지는 성내의 중간부분 해발 200m 정도에 있다. 원형으로 축조된 우물은 둘레가 직경 3.2m, 현재의 깊이는 3.4m이다. 그 외에 성내 부 남사면을 따라가며 곳곳에 건물터가 발견되며 많은 양의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다.¹²⁵⁾

10) 고양 행주산성(幸州山城)

행주대교를 건너자마자 행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길을 따라가면 행주산성 주차장에 이른다. 이 곳에서 정상부까지 포장된 도로를 따라 오르면 행주대첩비가 있는 성의 중심부에 이르게 된다.

행주산성(사적 제56호)은 1990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의 구조와 성격이 확인되었다.¹²⁶⁾ 행주산성은 고양시 덕양구 지도동 행주내리의 해발

12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여주 파사성지 1차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집」.

126) 임효재·최종택, 1991, 『幸州山城—정비복원을 위한 토성지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124.9m의 덕양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해발 70~100m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는 포곡식의 토축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km 정도이다. 유적의 남쪽은 한강에 연하여 있고, 동남쪽으로는 창릉천이 감싸고 돌아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연적인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성의 동남쪽과 남쪽 일대는 자연경사가 매우 급하여 자연적인 요새로서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

산성은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 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한 축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강안의 험한 절벽을 이용하고, 동북서로 전개된 넓은 평야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과 부합된다. 행주산성은 왕봉현의 현치지로 추정되며, 나당전쟁시 많은 당병이 수장된 왕봉하는 아마도 이 행주산성 부근의 한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성벽이 확인되는 곳은 산 정상부와 동남쪽 사면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일 뿐이며, 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성벽은 내성의 경우 정상부를 깎아내어 다듬은 뒤에 둘레 250m 정도의 토루를 형성하고 있다.

외성은 정상에서 동북쪽의 산등성이쪽에 자취가 남아 있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암반생토층을 정리한 후 성 내부쪽에 2단의 기초석렬을 배치하고, 목주를 이용하여 그 안쪽에 판축하였다. 판축은 5~10cm 정도 두께로 점토와 마사토를 번갈아 가며 교대로 다졌다. 외벽 기저부의 판축경계면에 지름 20cm 가량의 기둥구멍이 5~10cm 깊이로 4개 정도 남아 있다. 깊이는 굴토과정에서 상부가 유실된 것을 감안하면 70cm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덩이는 일정한 배열을 보이지 않으나 판축 기저부경계면에 있고 구멍의 방향도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판축과정에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세운 영정주(永定柱)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성벽기저부에 석렬을 배치하고 판축을 하는 사례는 평택의 비파산성과 천안 목천토성을 비롯하여 직산 사산성, 견학리토성, 신금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성내에서는 삼국시대의 방형 투공이 있는 단각고배류와 완형토기, 인화문토기편 등이 발견되며, 동이류와 병 등 일반적으로 통일기 토기라고 분류되는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기와의 경우도 격자문와나 선조문와 등 통일신라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와편뿐만 아니라 어골문이나 복합문 와편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일부 사용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11) 고양 고봉산성(高峯山城)

일산 시내에서 중산쪽으로 가다가 일산교를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왼쪽에 높은 산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곳이 바로 고봉산이다. 현재 산정상까지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정상에는 군부대의 통신탑이 높게 세워져 있어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정상 동쪽 해발 140m 지점에는 만경사가 있고 서쪽에는 영천사가 있다.

고봉산성은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중동의 고봉산(208.8m)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고봉산은 고양의 주산으로서 해발고도는 높지 않지만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주변 일대를 잘 조망할 수 있다. 고봉산성은 이 산의 정상부에 축조한 테피식의 석축산성으로서, 산성을 축조할 때 삼태기로 운반하였다 하여 태미산성이라고도 한다.

고봉산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안장왕(519~531)과 한씨 미녀의 전설이 전해오는 곳으로, 한씨 미녀가 고구려군에 연락하기 위해 봉화불을 밝혔다다는 산이 바로 이 고봉산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이 산성은 산성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봉화대로 활용되었는데, 내지 봉수 제4거의 직봉으로서 서쪽에서 교하 검단산 봉수를 받아 동쪽 봉현봉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고봉산성내에는 현재 군사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정상부에 대한 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상부를 돌아가며 쳐 놓은 담장외곽까지는 접근이 가능하여 철망 안으로 살펴본 결과, 정상부의 북동쪽 막사 앞에 길이 3m, 높이 2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축은 치석된 돌을 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쌓아 올라간 것으로, 삼국시대 성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부분은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탄화된 정상부의 둘레는 150m 정도이며, 정상부에 연결되는 부분은 급사면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사면의 능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30~40cm 크기의 성돌이 쌓여 있다.

현재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성 외곽 서남쪽 사면으로, 정상부에서 30m 정도 거리의 완경사면이다. 이 곳에서는 군용참호가 설치되면서 형성된 양단면과 참호구축으로

인해 파여 쌓인 흙더미 속에서 다량의 토기편과 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이 곳에서 발견되는 토기편은 굽이 낮고 1단의 투창이 있는 단각고배에서 무개완, 유개완 호 등 신라계의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배 뚜껑 중에는 신라 통일기 토기 중에서도 제작시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삼각집선문과 원문이 그려진 인화문토기가 있고, 대각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상당부분 잔존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성은 하남시에 있는 이성산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초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와편은 선조문이 주류를 이루나, 간혹 격자문과 승문도 있다. 특히 기와편 중에는 '高' 자명의 수키와 한 점이 발견되어 고봉산성 또는 고봉현의 치지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2) 용인 할미성

노고성은 용인시 구성면과 포곡면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해발 349.3m의 산 위에 있다. 백현이라 불리는 이 산은 남한산의 산줄기가 봉우리와 고개를 번갈아 이루며 남하하여 석성산으로 높아지는 마지막 봉우리이다. 이 산은 가파른 경사면이 있으나 아주 험준한 산은 아니며, 도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남쪽 성벽까지의 비고는 80m 정도이다. 이 곳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탄천과 경안천의 상류인 동시에 신갈천의 상류를 이루는 지형상의 요충이며 교통의 요지이다. 지금도 성 남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성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마성 톨게이트 입구 부근에서 능선을 따라 올라가거나, 향린동산 외곽도로에서 능선을 따라 접근하는 것이다.

노고성은 현재 석축의 성벽이 대부분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성의 가장 높은 위치는 북쪽이고, 남향한 경사면을 포용하면서 산비탈을 따라 성벽이 내려가 남쪽의 평탄한 곳에서 끝나고 있다. 성의 평면형태는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며, 형태상으로 테피식에 속하지만 사모형(紗帽形)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660m 정도이며, 성 내부에는 북쪽의 높은 위치와 남쪽의 낮은 위치 사이에 별도의 석축이 있어서 이 부분의 길이가 180m가 된다. 결국 성의 내부가 남북으로 구분되어 마치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 느낌을 준다. 성벽의 안쪽을 따라 내환도(內環道)가 있으며 군데군데 아직도 외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이 있다.



〈그림 19〉 용인 할미성 성벽

성돌은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아랫부분 성돌과 윗부분 성돌의 크기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성돌의 크기는 너비 40~60cm, 두께 20cm 내외이며 퇴물림쌓기를 하지 않고 자연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켜기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성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할 때 성돌의 너비는 1:1.9~1:3 정도이며, 1:5 이상의 것들도 관측된다. 이는 삼국시대 성돌의 일반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벽 중 특히 서측의 성벽은 외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으나 치성, 혹은 곡성의 흔적은 없다. 성의 안팎을 드나드는 소로는 북쪽의 능선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곳이 두 곳이고, 남쪽의 계곡을 따라 드나드는 곳이 두 곳이다. 안팎의 높이차가 너무 커서 이 곳에 문이 있었다면 아마도 현문(懸門)의 형식을 취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성내에서 와편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토기편만 약간 수습되었다. 발견된 토기편들은 대부분 호형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지만 회청색 경질이나 회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는 선조문이 조밀하게 타날되어 있다.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걸쳐 사용된 유물들로 추정된다.

이처럼 소봉의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성된 석축성들은 불곡산과 천보산 일대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으며,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들의 양상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고성 역시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축성한 성이라고 생각된다. 노고성은 자연봉괴에 의해 성벽의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이나 서벽의 일부는 외벽이 남아 있다. 성내외에는 잡목이 우거져 있어 성을 관측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성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지만 용인지역에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삼국시대의 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3) 이천 설봉산성(雪峰山城)

설봉산성은 관고리성지(官庫里城址) 또는 무안산성이라고도 불리며, 해발 394.3m인 설봉산의 정상부에 구축된 테피식의 석축산성이다. 설봉산은 불경에 나오는 설산·부악과 같다 하여 설봉·부아악이라 하며, 그 산세가 학이 날개를 편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무학·부학이라고도 한다. 주봉에는 설봉산성이 있고, 산줄기의 북서쪽과 북동쪽 봉우리에 도 작은 규모의 보루가 있다. 설봉산성은 관고동의 일명 기치미고개에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중일리에 이르는 산줄기의 연봉에 위치하고 있어 북쪽과 남쪽은 물론 주변지역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산성의 전체 둘레는 1,079m 이고 성내의 면적은 85,880㎡로서 삼국시대의 성 중에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산성이다. 성벽의 높이는 3~4m 정도이며 전면을 다듬은 화강암 성돌을 이용하여 바른층 쌓기를 하였고, 쌓기돌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성문은 어긋문 형태로 된 서문과 북문·동문이 있으며,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돌출시킨 치성은 4개가 확인되고 있다. 장대는 성내에서 가장 높고 지휘 관측이 용이한 칼바위 부근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노출된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 정도이다. 우물은 동문지 뒤편 평탄지에 1개소가 있으며, 수구는 북쪽과 동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였다.



〈그림 20〉 이천 설봉산성 성벽

단국대학교에 의한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인 칼바위부근의 토광과 서문지 하부에서 백제 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백제토기들은 백제왕도로 추정되는 몽촌토성이거나 풍납토성에서 출토되는 고배와 같은 유형의 것으로서, 설봉산성이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석성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동문지 상단 및 성내전역에서는 단각고배류와 인화문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함통(咸通) 6년(865년) 명의 벼루가 출토되어 이 산성이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9세기 중엽까지도 사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성은 규모가 각각 532m와 362m인 석축성으로서 성내에 건물지와 치성·문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삼국~통일신라기의 기와·토기·철기류가 출토되었다.

14) 김포 수안산성(守安山城)

김포시내를 지나 통진방향으로 48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양촌 방향으로 352번 지방도를 타고 6km 정도 가면 우측에 대곶중학교가 보이고 4거리가 나타난다. 이 곳에서 좌회전하여 1km 정도 가면 수안산성 표지판이 보인다. 표지판 앞에서 좌회전하여 마을길을 따라 700m 정도 올라가면 수안산성 남벽을 관통하여 성내에 이르게 된다.

이 성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올생리의 해발 146.8m인 수안산의 정상부에 축조된 테뫼식의 석축산성으로, 동~서 방향을 장축방향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성내에는 수안산봉수가 있었다. 이 봉수는 남쪽으로는 김포현 백석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강화부 대모성산과 응하였다.

수안산성은 1995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2003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과 봉수터 및 성내의 건물지에 대한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¹²⁷⁾

성벽의 전체 둘레는 685m이며 성내부의 면적은 3천 평 정도이다. 성벽과 내부는 1985년까지 군 부대가 주둔하며 참호와 군사용 기지를 설치하면서 많은 부분이 인위적으로 파괴된 상태이지만, 남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부분을 보면 성벽의 높이는 2~3m 정도이다. 성벽은 크기가 일정치 않은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는데, 들여쌓기를 하지 않아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며 현재 10단 정도가 남아 있다.

성내의 건물지는 현재 4곳이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성내에서 우물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약수터가 있고, 수안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3개나 되는 만큼 수원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지는 비교적 뚜렷한 흔적을 알 수 있지만 공동묘지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많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와편이 주류를 이룬다. 토기편은 단각 고배류와 인화문토기 합·완 등이 주류를 이루며, 단경호와 시루 등도 발견된다. 기와류는 격자문, 어골문, 선문, 복합문의 순으로 수습되는데 대체로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

127) 김병모·김아관, 1995, 『守安山城-지표조사보고서』, 김포군·한양대학교 박물관.

배기동·안신원·박신영, 2003, 『守安山城 試掘調査 報告書』, 김포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발견되는 유물이나 축성방법으로 보아 이 성은 신라 진흥왕대 한강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축성한 성이라고 판단되며, 통일신라기까지 서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으로 기능했다고 추정된다.

15) 화성 당성(唐城)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를 빠져나와 남양쪽으로 306번 지방도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송산에 이르게 된다. 이 곳에서 좌회전하여 309번 지방도를 타고 대부도 가는 길을 따라 3km 정도 가면 굴고개를 지나 지촌말에 이른다. 이 곳에서 우회전하여 산길로 500m 정도 올라가면 당성의 남벽을 관통하여 성내에 이르게 된다.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남양반도의 서신·송산·마도면의 경계가 교차되는 중심부 가까이 위치한 해발 165.7m인 구봉산(九峰山) 정상부와 동향한 계곡 및 서남쪽 능선에 성벽이 구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북서쪽으로 화량진성, 북쪽으로 해운산봉수, 서남쪽으로 염불산봉수, 남쪽으로는 백곡리산성, 청명산성 등 넓은 지역이 조망된다.

이 지역은 처음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한 때 고구려의 영토로 당성군(唐城郡)이라 하였으며, 신라(新羅)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당항성(唐項城)이라 하고 서해 바다를 건너 중국과 교통하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던 곳이다. 신라 하대(下代)에는 당성진(唐城鎭)을 설치하였으며 신라의 왕도에서 상주와 삼년산성을 거쳐 이 곳에 이르는 길을 당은포로(唐恩浦路)라 하였다.

당성은 1998년과 2000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의 구조가 확인되었다.¹²⁸⁾

성벽은 축성시기를 달리하는 2종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축성된 성벽은 구봉산의 정상부에서 봉화산으로 뻗는 남서능선을 따라 테피식으로 축조된 삼국시대 성벽이다. 둘레는 363m이며, 외벽높이는 4~5m이고 상면에는 2~3.5m의 회곽도가 조

128) 배기동·박성희, 2001, 『唐城-2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화성시.



〈그림 21〉 화성 당성 성벽 단면(기단부는 석축을 하고 윗부분은 흙을 다져서 쌓았다.)

성되어 있다.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는 북쪽에서 동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장방형의 화강편마암 성돌로 쌓아올렸으며 기단외면에 보축을 하여 성벽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성내에서는 단각고배류와 토기 등 6~8세기대의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두 번째 성벽은 이 성벽의 중간부를 관통하며 구봉산 동북쪽 능선을 따라가다가 동남방향의 산복부를 감싸안은 장방형의 포곡식 성벽이다. 지금까지 이 성벽이 내성으로 알려졌으나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의 테뢰식 산성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신라 말기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벽은 신라 하대의 당성진 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내에서 출토되는 통일신라 말기의 유물들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성벽의 둘레는 1,148m이며 외벽의 높이는 3~4.5m이다. 기단부는 석축을 하고 그 내부는 판

축기법을 이용하여 쌓은 토성벽으로서, 일부구간은 석심을 채워 쌓은 수법을 보이기도 한다. 남문터와 북문터는 정상부 아래의 기슭에 있고, 동문터와 수구터는 계곡 쪽에 있다. 수구터의 안쪽에는 지금도 샘이 있어 물이 사철 나오고, 주변에 건물터가 있다. 서벽에 연한 정상부에는 노목이 우거진 숲이 있고, 여기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다. 이 성황당을 헐고 발굴조사를 한 결과 망해루(望海樓) 터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당성의 진입로 입구에는 당성사적비와 주차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성내로 진입하면 넓은 평탄대지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동북쪽 능선과 서북쪽, 서남쪽 능선을 따라가며 작은 외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서남쪽 외성에서는 남양장성이라 불리우는 토루가 연결되고 있으나 정확한 축조시기는 알 수 없다.

이 성은 지금까지 복합식 산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 결과 시대를 달리하여 축조된 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대중국 향로의 기착지로서 역사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 유적이다.

16) 안성 망이산성(望夷山城)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와 이천시 울면 산양리에 걸쳐 있다. 망이산성은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차령산맥 중간부분의 해발 472m의 봉우리와 2개의 헬기장이 있는 봉우리를 감싸고, 동서로 뻗은 계곡부를 막아서 축조한 포곡식의 석축산성이다. 성벽부분은 지대가 높지만 성 안쪽은 지대가 낮고 평지가 넓으며 풍부한 물이 있다. 산성 서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면 안성·이천·음성 지역은 물론, 용인·진천까지 바라볼 수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망이산성은 시기를 달리하여 축성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성인 내성은 출토유물로 미루어 백제에 의하여 쌓였으며, 석성은 통일신라시기에 쌓은 것으로 밝혀졌다. 토성은 가장 높은 남쪽의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현재 밝혀진 길이는 250m쯤 되고, 북쪽에 문터로 짐작되는 곳이 있다. 특히 흙을 쌓을 때 버팀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자를 대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석성은 능선과 봉우리의 지세를 이용하여 쌓았다. 둘레는 약 2,080m이며 남북 340m, 동서 500m의 규모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이다. 성벽 안쪽에는 회곽도(廻郭道)와 4개의 문터가 있는데, 그 중 남문지와 서문지는 발굴조사가 되어 구조가 확인되었다. 특히 동문지는 마이산의 주계곡부를 가로지르는 곳에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산성의 주 출입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등성이 윗부분에 쌓은 치성(雉城)이 5곳 발견되었으며 4개는 문지 옆에 있어서 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한 개는 봉수대가 있는 봉우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치성은 모두 성벽에 덧대어 평면상 장방형의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건물지는 모두 8개가 확인되었다.

토성 안의 높은 곳에는 봉수터가 있는데, 생김새는 직사각형이고 자기와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다. 이 봉수는 동래·충주 등을 거쳐 올라오는 직봉(直烽)과 남해·진주 등에서 올라오는 간봉(間烽)을 서울 남산(목멱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내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걸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기와 중에는 ‘준풍(峻豐) 4년’ 명(963년) 기와가 출토되어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기와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7) 서울 호암산성(虎岩山城)

호암산성(사적343호)은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경계를 이루는 호암산(해발 347m) 정상에 있다. 성의 동쪽은 삼성산(460m), 관악산(629m) 등 높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쪽으로는 북류하는 안양천을 따라서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시흥동 방면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중간 부분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터진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곳이 당시의 문지로 추정된다. 시흥동에서 이 문지까지의 고도차는 150m 정도이다. 안양천을 따라서는 경부선과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어 교통의 요지임을 알 수 있다.

호암산성은 1989~90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어¹²⁹⁾ 성벽과 성 내부의 한우물, 제2우물지, 건물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많은 신라

129) 서울大學校博物館, 1990, 『한우물 虎岩山城 및 蓮池發掘調査報告書』.

토기, 명문 기와, 명문 청동순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성의 평면 형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쭉한 마름모꼴인데 표고 325m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전형적인 테뫼식 산성으로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성벽의 길이는 1,250m 가량이며, 남북 장축은 470m, 동서 단축은 200m 가량 된다. 성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동벽의 북쪽 부분인데,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제외한 부분에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성벽은 외벽만 정연하게 축조하고 내부는 돌을 채우는 편축 혹은 내탁법으로 판단된다.

한우물¹³⁰⁾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축 연못 위에 조선시대에 새로 석축 연못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연지는 17.8m, 13.6m, 2.5m의 규모로 13단 정도 줄을 맞추어 쌓아올렸으며, 석축의 뒷부분은 1.5~2m 가량 뒷채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2우물지의 규모는 남북 18.5m, 동서 10m 이상, 깊이 2m 이상 되는데, 한우물에 비하여 세장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명문 청동순가락과 각종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건물지는 성 중앙부 대지상(臺地狀)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의 조사 결과 3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많은 기와가 출토되었고 이 중에는 상당량의 명문 기와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에도 성의 곳곳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를 쉽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발굴조사 결과 많은 토기류, 기와류가 출토되었고 기타 주요 유물로는 명문 청동순가락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12개 기종, 1313 개체분에 달하는데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며, 기와는 무문이 가장 많고 어골문, 평행선문 등의 순이며, 문자와도 927점이나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명문 자료이다. 제2우물지에서는 〈仍伐內力只內末〉銘 청동순가락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호암산성이 위치한 서울시 금천구·구로구·관악구와 안양시 일대가 바로 『三國史記』 지리지에 나오는 잉벌노현(仍伐奴縣)임을 분명하게 해주었다.¹³¹⁾

호암산성 주변에서 눈에 띄는 신라유적은 없다. 다만 시흥동 일대가 조선시대 금천형의 치소였다는 점, 호암산성에서 금천현의 신라때 이름이 찍힌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130) 주민들에 의해 우물로 불리고 있으나 정확한 성격은 집수 및 저수를 위한 연못이다.

131) 栗川郡…屬縣 三 穀壤縣 『穀陽縣』本高句麗仍伐奴縣 景德王改名 今黔州…(『三國史記』卷35 志4 地理2)

이 일대가 신라 곡양현의 치소였던 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8) 파주 오두산성(烏頭山城)

오두산성(사적 351호)은 통일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오두산(119m)의 정상부에 축조된 테뫼식의 석축산성이다. 이 곳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정상부에서 남서 쪽으로는 김포일대, 서북쪽으로는 북한의 개풍군 일대가 한강 하구와 함께 한눈에 조망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오두산은 삼면이 가파르고 강물과 바닷물이 회돌아 흐르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의 주요 방어시설인 관미성(關彌城)



〈그림 22〉 파주 오두산성 원경(한강과 임진강 입구의 요새이다)

의 입지와 유사하다고 하여 조선시대부터 관미성으로 주목받아왔다.

오두산성은 통일동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991년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동벽과 북문지의 일부가 발굴되었으나,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축성시기와 정확한 성격은 밝혀지지 않았다.¹³²⁾

성벽의 전체 둘레는 1,200m 정도로서 삼국시대의 성 중에는 비교적 대규모에 속하며,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토사에 덮여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 곳은 6개소 정도이다. 성벽은 해발 80~100m 선을 따라 가며 축조되어 전체적으로 북쪽을 윗쪽으로 하여 ㄱ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노출된 성벽은 높이 1m 내외에 길이 10m 정도인데, 표면은 납작하고 길쭉한 화강편마암계의 할석으로 바른층 쌓기를 하였으며 뒷부분에는 잡석을 채워 넣었다.

출토유물로는 와편과 토기편, 철촉, 꺾쇠, 철못 등이 있으며, 이 중에도 기와편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특히 와편 중에 「元泉」, 「泉井」, 「草下」명 등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라는 676년 대당전투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매초성 전투 직전, 당의 보급로 차단을 위한 전투를 벌여 큰 전과를 올리게 된다. 이 명문와들은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천성(泉城)이 바로 이 오두산성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이다.

오두산성은 임진강에 면해 있으나 임진강을 도하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이 라기보다는 서해안에서 한강이나 임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으로 판단되며, 현재 발견되는 유물로 볼 때 대략 삼국~통일신라시기에 축성되어 고려~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의 개축이 이루어지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성을 백제의 관미성이나 고구려성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가능성 외에는 관련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확증하기 어려우며, 추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존하는 성벽의 축성방법이나 출토유물로 미루어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2) 황용훈·신복순·김희찬, 1992, 『오두산성 I』, 경희대학교고고미술사연구소·경기도.



제4절 고 찰

1) 축성주체

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그 성을 누가 쌓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일이다. 축성주체를 아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축성주체를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출토유물과 축성법을 살펴보는 일이다. 성을 쌓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해당하므로 축성당시의 토목기술을 반영하고 있기 마련이다. 입지선정과 축성방법, 성내 구조물의 배치 등에서 축성 당시의 기술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축성의 목적과 축성집단의 규모나 정치적·경제적 여건도 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리고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구와 유물이야말로 축성주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유물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동되었거나 후대의 유물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토기나 기와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성곽의 축성주체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성곽은 기본적으로 행정적·군사적인 측면에서 입지가 양호한 곳에 쌓기 때문에 시대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동일지역에 목책, 토루, 석축

등 축성방법을 달리하는 구조물이 계속 구축되었거나 수차에 걸쳐 보축이나 수축이 이루어진 경우 축성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유로 최근 경기도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곽 발굴조사의 경우도 축성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남 이성산성의 경우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성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성산성과 춘궁리 일대를 하남위례성터로 비정해 왔다는 점과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로 백제도읍지로서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¹³³⁾ 여기에는 발굴 담당자의 인식적 오류도 한 몫하고 있다.¹³⁴⁾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성산성은 물론이고 교산동 건물지와 천왕사지를 비롯하여 인근 춘궁리 일대에 대한 수차의 발굴조사에서도 백제나 고구려시기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풍납토성에서 수백 상자분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구의동 보루에서 수백여 점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성산성의 축성주체가 백제나 고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량의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포천 반월산성이나 이천 설성산성, 설봉산성 등이다. 이들 산성에서는 성의 내부에서 백제유물과 신라유물이 함께 출토됨으로써 축성주체에 대하여 백제설과 신라설이 양립되고 있는 상태이다. 포천 반월산성의 경우 동문지 내·외벽의 기저부에서 안정된 다짐토층이 확인되고, 여기서 백제토기가 출토된 점을 근거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백제에 의하여 축성되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¹³⁵⁾ 이천 설성산성이나 설봉산성의 경우도 축성방법이나 출토유물을 근거로 역시

133) 심정보, 2001, 「百濟 石梁山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제35호, 한국상고사학회, 152~154쪽.

134) 김병모·배기동·윤택용 외, 2000, 『仁聖山城』(8차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보고서에서는 출토유물을 삼국시대전기, 고구려계토기, 신라·통일신라기 토기로 구분하여 마치 백제·고구려유물이 출토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결론부에서도 2차성벽이 고구려성벽이라고 하여 1차성벽은 그 이전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35) 김호준, 2002, 「抱川 半月山城의 時代別 活用 研究－三國 및 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6쪽.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축성된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¹³⁶⁾ 그러나 석축성벽을 축성하기 위한 기단토 속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축성시기가 그 유물이 사용된 시기보다 늦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백제성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축성기법도 상호 참조하는 순환논리 속에 빠져 있다는 약점이 있다. 말하자면 반월산성이 백제성인 이유로 설봉산성의 예를 들고, 설봉산성이 백제성인 근거를 반월산성으로부터 도출하는 식이다. 아울러 석축성벽 내벽 안쪽의 점토다짐이나 외벽기저부의 성벽 보강시설은 백제성으로서의 가능성보다 오히려 신라성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반월산성이나 설봉산성, 설성산성 등은 이미 숙련된 석축성벽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석축성벽의 등장은 축성기술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성백제시기, 그것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이러한 완숙한 단계의 축성기술에 도달하였다면 이보다 늦은 시기인 웅진·사비시기에는 이처럼 완성된 형태의 석성이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성은 물론이고 도성에서도 석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지역 산성의 축성주체가 백제나 신라냐를 추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비교시점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백제성과 신라성 사이에는 200여 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고 그 기간만큼의 토목기술상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볼 때 신라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순수하게 백제유물만 출토되는 성곽은 예외 없이 토성이다. 포천 고모루산성, 파주 육계토성, 서울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의왕 모락산성, 화성 길성리토성, 이천 효양산성 등이 그 예이다. 이 중에서 본격적인 판축토성인 풍납토성은 예외적인 존재이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며 삭토하거나 성토하는 방식의 토성축성술이 한성기 백제의 전형이었다고 판단된다.¹³⁷⁾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역에 있어 정연한 석축성벽이 등장하는 시점은 최소한 신라가 한강

136) 김호준, 2002, 「설성산성 발굴조사 개요」, 『한국성곽연구회 창립 학술회의』, 한국성곽연구회, 20~21쪽.

137) 권오영, 2002, 「서울·경기지역의 최근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 부각된 고대사의 쟁점」, 『畿甸考古』제2호, 기전문화재연구원, 164~165쪽.

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 이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신라성곽의 입지와 기능

삼국시대 성곽의 입지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성곽은 수로나 주요 간선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축성되어 있다. 배후에는 넓은 평야지역을 포용하고 있으며, 전방으로 넓은 지역을 부감(俯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성내에 많은 양의 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장기간의 농성(籠城)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된 성곽 중 규모가 비교적 크고,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신라시기에 쌓았음이 확인된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역 신라성곽 현황(규모순, 단위 : m)

명 칭	소 재 지	해 발	상대고도	둘 레	축성방법	조사현황
망이산성	안성시 금산리	472	200	2,000	석축	발굴
설봉산성	이천시 사음동	316.7	200	1,800	석축	발굴
당성	화성시 상안리	165.7	115	1,668	석축·토축	발굴
이성산성	하남시 춘궁동	129.8	120	1,665	석축	발굴
비파산성	평택시 용성리	102	60	1,622	토축	지표
대모산성	양주시 방성리	212	110	1,400	석축	발굴
호암산성	구로구 시흥동	347	240	1,250	석축	발굴
아차산성	광진구 광장동	205.5	100	1,125	석축	발굴
독산성	오산시 지곶동	207	90	1,100	석축	시굴
설성산성	이천시 선읍리	266.6	160	1,095	석축	지표
반월성	포천시 구읍리	283.5	130	1,083	석축	발굴
행주산성	고양시 행주내동	124.8	70	1,000	토축	지표
봉서산성	파주시 봉암리	214	130	1,000	석축	지표
파사성	양평군 상자포리	230.5	180	943	석축	발굴
칠중성	파주시 전읍리	149	60	800	석축	지표
할미성	용인시 동백리	349.3	200	660	석축	지표
테외산성	남양주시 광전리	370.2	280	625	석축	지표

명 칭	소 재 지	해 발	상대고도	둘 레	축성방법	조사현황
수안산성	김포시 율생리	146.8	100	615	석축	지표
대모산성	강남구 일원동	290	190	567	석축	시굴
무성산성	평택시 옥길리	104.7	60	547	석축	지표
신원리성지	양평군 신원리	365.9	300	543.7	석축	지표
성동리성지	포천시 성동리	181	80	368	석축	지표
불암산성	남양주시 화접리	420.3	320	221	석축	지표
수철성	연천군 양원리	397	200	173	석축	지표
고봉산성	고양시 성석동	208.8	150	150	석축	지표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지역에 있는 삼국시대 성들의 입지는 해발 100m 미만부터 해발 500m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산성의 경우 넓은 지역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절대고도보다도 주변의 생활면을 고려한 상대고도(比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성의 상대고도를 살펴보면 100m 이하가 6개소로 24%, 101~200m 높이에 있는 것이 16개소로 64%, 201~300m 높이에 있는 것이 3개소에 12%, 300m 이상이 1개소로 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비고 200m 이하에 위치하는 것이 전체의 88%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성들이 이처럼 비고가 낮은 지점에 위치하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의 성과 같이 피난성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전략적인 거점 및 행정적인 기능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주변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능이 가능한 곳이 주로 선택되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높이가 주변의 평지로부터 100~200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의 규모를 보면 1,500m가 넘는 성은 이천 설봉산성, 안성 망이산성, 화성 당성, 하남 이성산성, 평택 비파산성 등 5개소가 있으며, 1,000m가 넘는 성으로는 양주 대모산성과 이천 반월산성, 고양 행주산성, 이천 설성산성, 서울 호암산성, 아차산성, 파주 봉서산성 등이 있다. 나머지 성들은 둘레가 1,000m 미만이며, 그 중 500~600m의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성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들의 분포위를 보면 둘레가 1,000m가 넘는 성들은 상호 근접하여 분포하지 않고, 최소한 하나의 군

이나 그 이상의 영역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성들 사이사이에는 소규모의 성이나 보루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성곽의 분포상태는 군·현 등 행정단 위와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들 성곽들이 대부분 조선시대의 군현치지로부터 4km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나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 「北漢」(아차산성), 「泉井」(오두산성), 「竹州」(망이산성), 「馬忽」(반월산성) 등 군현명이 찍혀있는 기와가 출토되는 사례 등도 신라의 산성들이 행정치소로서의 기능을 겸비하였음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된다.¹³⁸⁾

3) 신라 석축성의 축성 방법

신라의 성곽은 규모에 따라 축성방법과 입지도 달리하고 있다. 테피식 산성은 포곡식에 비하여 규모도 작고, 주로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에 축성되며 주성을 보조하는 위치나 전략적 요충지에 밀집분포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성들은 기본적으로 곡저부를 포괄하여 성내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도록 축성하였다. 또한 신라성곽은 석축을 기본으로 하므로, 토성을 주로 하는 백제성과 달리 능선의 정상부보다는 9부 능선이나 능선정상부에서 한단 아래쪽 외곽을 택하여 축성하고 있다. 이는 토축과 석축의 공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토성의 경우 급경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삭토를 하거나 능선정상부를 보강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석축은 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내부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측면 바깥쪽에 구축하였다. 신라성곽의 특징은 이처럼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각의 지형에 걸맞는 축성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석축성벽은 편축과 협축으로 구분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협축의 개념은 성벽의 기저부나 성내벽의 상당부분이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편축은 성벽의 외면은 지상에 노출되지만, 내면의 기저부는 물론이고 대부분이 지하에 묻혀있거나 내

138) 박성현, 2001, 「新羅 郡縣城과 그 性格-6~8세기 漢州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碩士學位論文, 53~65쪽.

심봉근, 1999, 「신라성과 고구려성」, 『고구려산성과 방어체제』(제5회 고구려국제학술대회), 고구려연구회, 423쪽.

벽을 암반이나 생토면에 의지하여 쌓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역의 신라성곽 중 부분적으로 지형에 따라 내벽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협축성이라고 할 만한 성은 없으며, 대부분의 성은 편축으로 축성되었다. 편축성벽은 경사면에 의지하여 쌓게 되므로 내탁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축성기법을 보면 표토를 걷어내어 L자 형태로 생토면을 다듬은 후 성벽의 기반부부터 내·외면을 동시에 구축하면서 올라가되, 내벽과 생토면 사이의 공간은 판축을 하듯이 점토나 사질토로 다져서 성벽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성벽의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축성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은 서울 아차산성과 하남 이성산성, 포천 반월산성 등에서 확인된다. 이 때 성 내벽의 다짐토를 토성의 흔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석성과 토성은 축성의 기본적인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성돌의 형태와 축성방법이다. 현존하는 성벽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삼국시대 신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축성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신라성벽의 특징 중 하나는 정연한 면석 가공이라고 할 수 있다. 석축성의 면석은 가공 정도에 따라 자연석, 할석, 조잡한 가공석, 절석가공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라성곽의 경우 대부분 조잡한 가공석 내지는 절석가공석에 속할 정도로 성돌 하나하나에도 많은 공을 들였음이 확인된다. 면석은 너비 30 ~ 45cm, 두께 20cm 내외, 길이 50 ~ 60cm 정도 크기의 사각추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석의 크기는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6세기에서 7세기 중엽까지의 성돌은 두께와 너비의 비가 1:1.65 ~ 1:4 정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7세기 중엽 이후의 성돌은 1:1.45 ~ 1:2.38로 성돌의 너비가 좁아져 정방형에 가까워지고 성돌이 더 정연하게 다듬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³⁹⁾ 성벽의 내부는 예외 없이 좁고 길쭉한 돌을 길이방향으로 쌓았으며 잔돌이나 흙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성벽 기저부의 축성방법은 자연지형에 따라 자연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연약지반이 있는 구간은 점토와 잡석다짐을 하여 지반보강을 한 후 지대석을 올려놓았다.

139) 심광주, 2000, 「二聖山城의 築城技法과 機能」, 『2000年度 博物館誌』, 漢陽大學校博物館, 24 ~ 30쪽.

지대석은 구간에 따라 체성벽의 성돌과 같은 크기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1m가 넘는 장대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줄을 맞추어 쌓는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크기가 정연하고 다듬어진 성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썰기돌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돌의 줄눈은 아랫단과 윗단이 일치하지 않도록 대체로 6:4 정도의 지점에서 맞물리도록 하고 있다. 성벽의 안정성을 위한 퇴물림쌓기는 초기의 성벽들은 오히려 수직에 가깝게 쌓는 반면, 후기로 갈수록 점점 물려쌓기를 많이 하여 안정성은 높아졌으나 성벽의 경사도가 낮아짐으로써 성벽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하남 이성산성의 2차성벽을 보면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성돌 면석의 중간부분이 안쪽으로 경사지도록 다듬어서 윗단의 돌을 아랫단의 상면에 맞추어 놓더라도 자연스럽게 5~10cm 정도 들어쌓기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석축성벽은 돌의 무게 때문에 기저부에 전달되는 압축력이 엄청나고 성벽 내면에서 밀어내는 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벽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때문에 성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강시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 성 외벽의 기저부에 일정한 높이로 보축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보축은 성벽의 기단부 아래쪽에서부터 일정한 높이까지 체성벽을 덮어서 단면삼각형이 되도록 하였다. 아차산성과 대모산성, 이성산성, 반월산성 등 대부분의 신라성벽에서 이러한 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보축 방법은 성돌과 같은 형태의 돌로 횡적하여 쌓기도 하지만 형태가 정연하지 않은 석재로 면만 맞추어 쌓는 경우도 있다.

신라성곽의 성문은 현문식 성문이 일반적이다. 현문은 체성벽을 일정한 높이까지 쌓고 성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지 않고는 출입이 곤란한 형태이다. 이러한 현문은 고구려성이나 백제성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신라성의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형태가 잘 남아 있는 영월왕검성 동문지의 경우 개구부의 높이가 2.4m이고 너비는 3m 정도이며¹⁴⁰⁾, 충주 남산성 동문지는 개구부의 높이가 4.5m로 매우 높고 너비는 4.6m 정도이다.¹⁴¹⁾ 이성산

140) 차용걸 외, 2000, 『寧越王儉城』,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영월군.

141) 차용걸 외, 1999, 『忠州山城 東門址-發掘調査報告書』,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충주시.

성 동문지는 개구부의 높이가 3.5m이며 너비는 6m 정도이다. 개구부의 안쪽부분에 두 개의 문지공석이 노출되어 판문형태의 성문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¹⁴²⁾ 이처럼 현문식 성문을 만드는 것은 문구부로 인한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문은 성의 출입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필요시 사다리 같은 출입시설을 내렸다 올렸다 하였을 것이며, 설봉산성이나 이성산성처럼 별도의 등성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성문의 내부에는 이성산성이나 삼년산성, 설성산성처럼 내용성을 설치하여 성문의 취약점을 보강하였다. 양주 대모산성의 동문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동문과 서문 모두 현문식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문지공석이 남아 있고 문의 회전축 역할을 하던 철물도 남아 있어 판상으로 된 성문이 개구부의 앞쪽과 뒤쪽에 2중으로 설치되었으며 바깥쪽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설성산성에서는 판문의 두께가 12cm 정도였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현문식 성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지는 다른 곳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문지에는 수구가만 들어지는데, 문지의 바닥에 평거식(平居式)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성산성이나 온달산성의 수구처럼 성내부와 성 바깥의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입수구와 출수구의 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이 대부분이다. 삼년산성처럼 위가 좁은 사다리꼴의 구조도 확인된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지역에서 발견되는 신라성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성곽이 어떻게 축성방법상의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나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 지형을 선정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며, 축성의 절차를 계획하고 인력동원과 예산확보 등 아주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공사를 단기간 동안 완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집단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축성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민간인보다는 군인들에 의하여 축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군의 편제속에 축성기술자로 구성된 공병부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직관

142) 배기동 외, 2002, 『三聖山城-9차발굴조사보고서』, 하남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도지역은 한산주에 속해 있었고 한산주에는 직할부대인 한산정(漢山停)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산정의 예하부대로는 군사당(軍師幢) - 대장척당(大匠尺幢) - 보기당(步騎幢) - 흑의장창미보당(黑衣長槍未步幢) - 삼천당(三千幢) 등이 있었으며, 궁척(弓尺)과 만보당이 있었다. 흑의장창미보당은 기병에 대응하는 장창부대이고, 궁척은 활(弓)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이며 만보당은 도끼와 방패를 사용하는 보병부대로 추정된다.¹⁴³⁾ 대장척당은 〈南山新城碑〉에 장척(匠尺)이 축성기술자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축성을 전담했던 공병부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장척당의 군사적인 편제와 부대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당수의 축성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축성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지나도록 이 성들이 정연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대장척당에 소속된 토목기술자들의 놀라운 기술력과 축성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143) 이인철,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일지사, 349쪽.



〈그림 23〉 서울 아차산성 성벽(보축성벽이 보인다)



〈그림 24〉 서울 아차산성 동문지(현문식 구조이며 문바깥쪽에 웅성처럼 둥글게 보축성벽을 쌓았다.)



〈그림 25〉 이천 설성산성 북문지(현문식 구조이며 등성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6〉 이천 설성산성 성벽



〈그림 27〉 하남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투석용 강돌